

# 한국아트포럼, 4월27일~5월18일 매주 일요일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 공연



이승희 무용가



강은주 무용가

한국아트포럼(KAF)은 뉴욕시 교통국(DOT)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전통 한국 무용 형식을 선보이는 독특한 문화 이니셔티브인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를 4월 27일(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연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풍부한 예술 전통과 함께 활기찬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내는 매혹적인 참여 춤과 북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아트포럼은 뉴욕시 교통국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전통 한국 무용 형식을 선보이는 독특한 문화 이니셔티브인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를 4월 27일(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연한다.

공연은 퀸즈 서니사이드의 퀸즈 블러바드와 그린포인트 애브뉴 사이의 46번가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4월 27일(일) △아시아 유산의 달을 맞아 5월 4일(일) △5월 11일(일) △5월 18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이 프로젝트에는 뉴욕 퀸즈 서니사이드에 기반을 둔 이승희 한국 전통 무용가와 뉴저지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있는 강은주 무용가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승희 무용가는 민권센터와 플러싱의 YWCA에서 함께 일하는 댄스 그룹과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강은주 무용가는 뉴저지 출신의 재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우리가락무용단을 이끌고 공연한다.

이 명인 무용수들은 함께 30명 이상의 공연자들로 구성된 세대 간 그룹을 지휘하며 풍물놀이, 사물놀이, 삼고무, 모듬북춤, 장고춤, 진도북춤 등 다양한 한국 전통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한국의 리드미컬한 타악기와 춤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동체 정신, 화합, 공동체 에너지를 강조한다. 민속 전통, 농민 풍습, 공동체 축제에서 비롯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한다.

이 시리즈는 뉴욕시의 예술과 문화 현장에서 한국 전통 북춤과 민속 무용수들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응한다. 예술가들의 나이, 이민 신분, 예술을 현대적이 아닌 '전통적'으로 인식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용수들과 그들의 예술은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뛰어난 예술 형식을 잃지 않도록 공연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Sunnyside Dance Project**  
Songhee Lee-Chung and Eunjo Kang

A cultural initiative celebrating traditional Korean dance forms in partnership with the NYC DOT Open Streets program

April 27 - May 18  
**Sundays 2pm-4pm**

**46th Street**  
Between Queens Blvd and Greenpoint Avenue in Sunnyside

**KAF** KOREA ART FORUM  
<https://www.kafny.org>  
info@kafny.org

NYC Cultural Affairs, Council on the Arts, CACF, ywca, JALIE WOH, KPAC